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2. 8. 28 ~ 2022. 9. 17 제270호

## 여전한 대구 모스크 갈등... “건축주, 복구청 중재안 거부”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두고 1년 넘게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복구청이 개최한 사원 건축주와 주민들과의 중재회의에서 건축주가 복구청의 중재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기독교매체 보도에 따르면, 복구청 측은 지난 16일 열린 중재회의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사원 건축을 위해 부지를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면, 현재 사원 건축이 중지된 대현동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은 이 중재안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학내 이슬람 기도원 처소 마련 등 경북대 측이 제시한 갈등 중재안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원 건축주 측은 이슬람 라마단 시기 동안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을 대규모 수용하기 위해 지난 2020년 현재 대현동 부지를 매입해 구청으로부터 이슬람 사원(245㎡) 건축 허가를 받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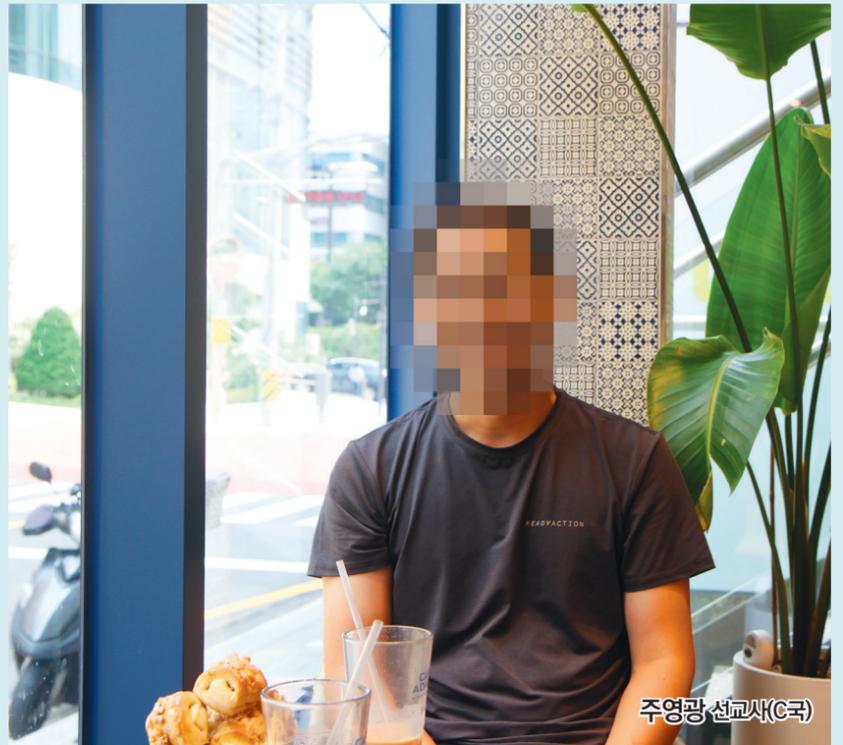
다. 그러자 대현동 주민들은 주택 밀집지역인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선다면 소음·일상생활 불가 등 여러 피해가 예상된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복구청은 주민 민원 등을 참작해 사원 건축주 측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사원 건축주 측은 올해 4월 대구 복구청을 상대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승소해 지난 6일과 8일 2차례에 걸쳐 공사를 강행했다.

이에 주민들은 사원 공사장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는 한편,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은 주민들을 향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애 대구무슬림모스크사원 비대위 부위원장은 “최근 복구청이 개최한 중재회의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은 복구청과 경북대의 설득과 중재안도 거부하면서, ‘다시 그런 제안하면 중재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며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은 대현동 주민들의 지속적

인 반대에도 타협점을 찾기는커녕, 이미 법적으로 승소했다며 주민들을 향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이슬람 사원은 무슬림들이 집단 속에서 스스로를 세력화할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2015년 유럽 국가들은 시리아의 대규모 난민을 받아들였지만, 이들은 이슬람이라는 강한 종교적 배경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범죄와 살상을 저질렀다. 무슬림을 혐오하는 것은 안 될 일이지만, 자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문제를 알고서 간과하는 것도 안 된다. 정부 관계자들이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처하게 하시고,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에게 다가가 진정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샤리아법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참 자유가 임하게 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GNPNEWS]



### Interview



주영광 선교사(C국)

## 선교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영광 선교사는 선교사 자녀(MK, Missionary Kids)로 자랐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경험하고 더 고민할 것 없이 선교사로 헌신했

다. 선교사의 삶을 몸에서 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선교사로 준비했다. 하나님을 개인 구주로 준비하는 신이 이야기는 이 한 줄의 찬양 가사로 설명될 것 같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주영광 선교사를 만났다.

• 4면에 계속



### 마음의 눈을 밝히사 (54)

## ‘살게 하는 법’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로마서 3:20)

결론은 났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안 된다, 틀렸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 편에서의 모든 희망은 이제 접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옳게 살아보아야지. 율법을 지켜보아야지.’ 하고 결심해봤자 최종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에서 유를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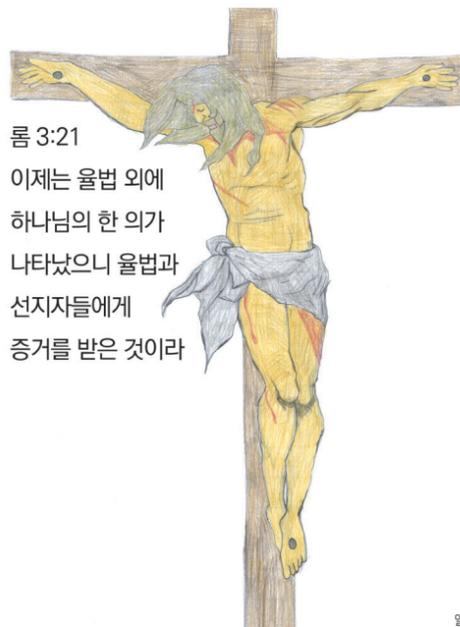
조하시는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원형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렇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끝이 나서 털썩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한 다른 의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과 21절이 그 분수령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로마서 3:21~22)

율법은 공의의 법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복음의 의도 하나님의 공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율법은 ‘살아야 하는 법’인데, 복음은 ‘살게 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일러스트=김경선

롬 3: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기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 자체를 의(義)로 여기십니다. 일하는 것과 똑같이 여겨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받

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로 삼아주십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 복음의 소리 316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포토뉴스

# 전쟁과 폭력에 평화의 갈급한 미얀마



▲ 미얀마의 한 마을 우물에서 물을 끄는 청년. 제공: WMM

**미얀마의** 한 청년이 마을의 우물에서 물을 힘껏 퍼올린다. 누구든 목이 마르면 와서 마실 수 있다. 미얀마에서는 작년 2월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5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쿠데타 이후 고향을 떠난 실항민들이 694만 3000명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는 쿠데타 발생 후 군부 측이 저지른 살인, 고문, 성폭력 등의 증거뿐 아니라

민간인을 향한 의도적인 공격, 무차별 살인, 마을 전체에 대한 방화 등의 전쟁 범죄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정권은 지속적인 교회 방화와 기독교인 살해, 교회건물을 폭탄으로 파괴하고 있으며 교회에 들어와 헌금 등을 갈취하고 있다고 오픈도어 선교회가 전했다. 사일 구 지역에서 많은 불교 탐과 범당은 단 한 발의 총알 공격도 받지 않았지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들은 파괴되었으며, 기독교인들은 짐승처럼 살해되고 있다.

폭정과 불의와 살인으로 미얀마의 영혼들은 목이 마르다. 죄인이 발버둥치며 스스로 길어 올린 물은 다시 목마를 뿐이다. 그러나 복음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3-14) [GNPNEWS]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부르키나파소군, 주민 40명 이상 학살 주장

부르키나파소의 인권단체 CISC가 이달 초 투구리 지역 아포고 마을에서 군인들에 의해 주민 40명 이상의 학살이 벌어졌으며, 이들과 다수는 납치 후 즉결 처형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르키나파소군은 이들이 군으로 가장한 무장단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은 수시로 주민들을 살해하고, 군부는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세 번의 쿠데타로 정치적 불안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끊임 없이 시달리는 부르키나파소에 안식을 주십시오. 이 땅의 소요가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 주십시오. 이 땅에 심어진 성도와 교회의 믿음을 통해 나라를 회복시켜주십시오.

### 엘살바도르, 비상사태 5개월 '5만 명 이상 체포'

지난 3월 비상사태가 선포된 엘살바도르에서 '갱단과의 전쟁'으로 5개월 동안 5만 명이 체포됐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비상사태 이전 수감 인원까지 합하면 성인 인구의 약 2%가 수감된 셈이다. 갱단과 무관한 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이고 있으며, 인권 침해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무법천지가 되어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안정을 허락해주십시오. 억압과 공포로 쓸어버린다 해도 사회가 깨끗해질 수 없음을 지도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각 영혼 안에 죄성을 무너뜨리시고 정결케 하시는 복음을 감옥에서라도 들려주십시오. 억울하게 끌려가 상처 입는 영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 국내 의료진 부족 사태... 환자 생명 살릴 필수 의료인 없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필수 의료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가 무너지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6일 보도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올해 흉부외과 선택 전공의는 23명(35%),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7.5%로 급락했다. 국내 분만 병원은 2007년 1027곳에서 지난해 474곳으로 급감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전공의를 다 채운 병원이 전국 5개밖에 없고, 전공의가 한 명이라도 있는 병원도 절반밖에 안 된다고 전했다.

이 땅을 치유하고 고칠 의료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소명을 받은 청년세대들을 일으켜 주셔서 생명을 살리며 영혼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GN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2년 8월 29일 ~ 2022년 9월 17일

**8월 29일 ~ 9월 3일** ▶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8.29~9.2(11~17시) ▶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8.30,9.1~3(20~22시) ▶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9.2(10~14시) ▶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9.2(10~17시) ▶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9.2(13~16시) ▶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9.2(12시)-3(12시) ▶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9.3(09~21시) ▶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그 외 6교회 진행중.

**9월 5일 ~ 9월 10일** 9.5~7(13~17시) ▶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010-3191-8622, 9.5~10(10~20시) ▶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9.6(11~13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9.8(0~24시) ▶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9.8(20~22시) ▶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9.9~10(5~17시) ▶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106-3632, 그 외 9교회 진행중.

**9월 12일 ~ 9월 17일** 9.13~16(14~16시) ▶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9.15(20~22시) ▶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9.16(10~14시) ▶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9.16(10~17시) ▶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9.16(0시)~17(24시) ▶ 대전 서구 / 광야아들공동체(정\*\*)010-3697-0641, 9.17(09~18시) ▶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그 외 9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 베트남 정부, 등록 교회 통해 교회간 갈등 일으키며 교회 와해시켜

베트남 정부가 등록된 교회 목회자에게 미등록교회의 전도활동 자체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교묘하게 교회간 갈등을 일으키며 교회를 와해시키고 있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 닥락성 지역의 한 미등록교회 목회자가 오지의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공무원들의 방해에도 멈추지 않자, 통제할 수 있는 등록교회 목회자에게 전도활동을 멈출 것을 요청했다. 해당 지역 공무원은 그동안 이 미등록교회의 전도를 막기 위해 목회자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바퀴에 나무 막대를 끼워 전복사고가 일어나도록 하기도 했다. 실제 이런 사고로 목회자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목회자와 그의 가족들은 전도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자 지역의 정부 당국자는 전략을 바꿨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베트남 정부 당국자들이 등록교회의 해당 지역의 대표로 임명된 베트남 복음주의교회(ECVN) 소속 목회자를 찾아가 미등록교회 목회자에 전도 지역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ECVN 소속 목회자는 미등록교회의 목회자

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 경계를 넘은 전도활동을 질책한 뒤, 특정 지역 내에서만 전도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미등록교회 목회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자신은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폴리 대표는 "이런 과정을 통해 두 형제 교회는 갈등을 겪다가 갈라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처럼 베트남 정부가 인가를 받은 등록교회를 조종해 미등록교회의 활동을 억압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미 국무부가 2021년에 발간한 베트남 국제 종교자유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당국의 요원이나 프락치를 투입해 교회간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폴리 대표는 "이는 분열시킨 다음에 정복하는 전략이지만, 베트남 정부가 새로 고안해 낸 것은 아니다."라며 "권력자들은 신약성경의 초대교회 교인들때부터 현대의 성도들까지 비슷한 짓을 놓고 교회를 분열시켜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우는 것보다 정부 당국자들이 더 좋아하는 것은 없다."며 "이러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등록교회와 미등록교회가 서로 갈등을 피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폴리 대표는 "분열의 이유가 할레이든 음식에 관한 규제 이든 특정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든 바울의 조언은 항상 동일했다."고 말했다. 즉 구원을 위해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양심을 거스르도록 강요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조언이다. 그녀는 "로마서 13장의 가르침이 가이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바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무조건적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진리를 등록교회에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우리에게 징벌을 부과할 때 그 징벌이 부당하더라도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진리를 미등록교회에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기획 | 성윤리·생명존중

# 미국, 무너진 성윤리 회복과 생명존중 정책 및 입장 잇따라 등장

최근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결정 이후 연방 차원에서 낙태합법화에 제동이 걸리는 등 미국 전역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성윤리 회복을 위한 판례와 정책들이 잇따라 등장, 눈길을 끌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합법화된 낙태를 50년 만에 뒤집고 각주가 낙태문제를 결정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26개 주는 낙태를 금지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잇따랐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단이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그동안 미국 여성은 임신 첫 3개월 동안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었고 이후 3개월 동안은 제한적으로 낙태가 가능했으며, 마지막 3개월 동안의 낙태는 완전히 금지됐다.

다음은 울뜩여 올바른 성윤리와 생명존중을 위한 미국 각지에서 시행되거나 결정된 내용들이다.

## 앨라배마,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금지·화장실 생물학적 성별 따라 이용

앨라배마주는 지난 4월,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위한 치료를 금지하고 화장실과 탈의실을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사용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SB184는 의사들이 아이들에게 사춘기 차단제와 호르몬을 처방하고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매우 취약한 단계에 있을 때, 이러한 급진적이고 생명을 바꾸는 약물과 수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 플로리다, 미성년 트랜스젠더 시술 금지

플로리다주는 지난 8월 5일 미성년자에게 트랜스젠더 시술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 플로리다 의학위원회(Florida Board of Medicine)는 이날 소아와 청소년이 호르몬 요법을 처방받거나 신체 절단 수술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했다. 조셉 라다포 보건총감은 “과학에 근거한 진실이란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진실과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하는 바에 따른 진실이 있는데, 나는 불행히도 정치적 신념이 과학적 추론, 과학적 데이터를 추월하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 정체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약물이거나 수술이 아니라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텍사스, 아동에 성전환 권장 조사

텍사스 대법원은 지난 5월, 아동에게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해 불임화되거나 성별교차 호르몬 치료제를 처방하고 성전환 수술을 권장하는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아동보호기관(CPS)이 재개하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입장은 성별불쾌감을 갖고 있는 아동의 부모와 의사가 사춘기 차단제를 아동학대

의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팩스톤 장관은 의견서에서 수술, 교차 성호르몬, 이차 성징 차단제 등을 포함한 특정한 ‘성전환 수술’을 어린이에게 시행하는 것은 텍사스 법률에서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이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은 5월 13일, (아동에 대한) 부모의 결정이 유효하다는 판결과 동시에, 아동보호기관의 주 전체 조사 금지는 제외한다는 혼합된 판결을 내렸다. 즉 아동보호기관이 주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들에 대한 약물처방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지방법원에서 아동보호기관에 의한 성전환 치료를 받은 가정들의 조사를 일시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대법원에서 조사 대상을 원고 가정으로 국한하지 않고, 텍사스 주 전체 가정을 조사하도록 한 판결이라 의미가 있다.

## 미 12개 주, 성 정체성·성적 지향 커리큘럼 금지

플로리다주에서 지난 3월 28일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 금지 법안을 제정한 이후 앨라배마·오하이오·루이지애나·텍사스 등 최소 12개 주가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주제로 한 커리큘럼을 사용하거나 이를 토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개정해 젠더(사회적·문화적 의미의 성)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에 관한 내용에 초점



▲ 낙태 반대 금지 운동을 하는 미국 시민들. 출처: 40daysforlife.com 캡처

을 추진하고 있다. 텍사스주 그렉 애보트 주지사도 주의회 다음 회기 때 비슷한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 2월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교실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업·토론을 금지하는 ‘부모의 교육권리법’을 제정했으며, 부모들이 이 법을 위반한 교육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 오克拉호마, 공립학교서 생물학적 성별 따라 화장실 사용

오克拉호마주 케빈 스틱 주지사는 6월에 공립학교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상원법안 615호는 “(오克拉호마주의)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각 공립학교 및 자율형 공립학교(차터스쿨)는 ‘남성 전용’ 또는 ‘여성 전용’으로 지정된 다인용 화장실 또는 탈의실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성별’을 “개인의 출생증명서에 명시된 유전자와 생리학에 기초한 남성 또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학교 측은 이를 원치 않는 모든 개인에게 합리적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은 “1인용 화장실

정의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지침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테네시주 동부지법 찰스 애칠리 판사는 7월 15일 “테네시주 vs 미국 교육부” 사건에 대한 이 같은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20개 주가 연방정부 기관이 작성한 지침의 집행을 막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미국 내 20개 주는 트랜스젠더 선수들에게 본래의 생물학적 성에 따라 경기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 미국 10대 탈성전환자, “성전환 수술 후회, 10대 대상 성전환 수술 막아야” 주장

미국의 10대 탈성전환자 클로이 콜(17)은 최근 사춘기 차단제, 성별교차 호르몬 복용, 유방 조직이나 생식기 제거 수술의 피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세에 사춘기 차단제와 테스토스테론 복용을 시작한 콜은 15세에 유방절제술을 받았다. 콜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내 몸에서 내 진정한 자아를 육체적으로 절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 청소년들은 성혁명적 이데올로기 교육과 이에 따른 정책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 성별불쾌감을 겪는 아이들에게 사춘기 차단제나 교차 성호르몬을 장려하는 주의 아이들의 자살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 교육 정책센터(The Center for Education Policy) 선임 연구원인 제이 그린은 바이든 정부와 LGBT 활동가들이 소위 말하는 ‘성별 확인 케어(gender-affirming care)’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의료이며 그들이 자살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과 10대 청소년들에게 교차 성호르몬을 처방하는 것은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은 성별 확인 케어에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더 쉬운 주에서 청소년 자살이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GNPNEWS]



▲ 미국의 최소 12개 주에서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주제로 한 커리큘럼을 사용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오른쪽은 드래그 퀸(Drag Queens)의 모습. 출처: CDC on Unsplash / wifamilyaction.org 캡처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수술 중에는 거세술, 정관 절제술, 자궁 절제술 등이 있다. 또한 두 번째 법안인 HB322는 공립학교에서 화장실, 탈의실 및 샤워실을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하도록 했다. 아이비 주지사는 성명에서 “나는 주님께서 당신을 소년으로 만드셨다면 소년이고, 당신을 소녀로 만드셨다면 소녀라고 굳게 믿는다.”면서

라고 밝힌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를 고소한 사건의 판결을 통해 발표했다. 앞서 애보트 주지사는 서한으로 가족보호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DFPS)에 사춘기 차단제를 “아동 학대”라고 설명하며 해당 부서에 법무장관 켄 팩스톤이 제시한 주법을 따르라는 명령을 내려, 이들 아동의 부모와

을 맞추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아이오와주는 젠더 정체성 관련 교육을 할 때 반드시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미주리주와 인디애나, 켄터키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젠더·성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고, 오克拉호마주에선 학교 도서관에 성이나 성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서적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이나 탈의실”로,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원하지 않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 학생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을 어긴 교육구는 그 다음해 회계 연도에 주 정부의 지원금 5%가 삭감된다.

## 테네시, 성차별에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포함 말아야

테네시주는 지난 7월, 성차별의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돌굴림이로 순종하는 주영광 선교사 (C국)

### • 1면에 이어

- 선교사 자녀로 성장해 선교사가 되는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보통 가정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조금 센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당연하다고 알고, 믿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옳은가? 과연 그러한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믿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 그렇기 때문에 믿는가?’를 중학교 1학년 때 6개월 정도 고민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그전부터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보고 경험한 주님이 성경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주님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나니 그 뒤의 결정은 쉬웠어요. 저는 다른 장래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또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 더욱 당연히 선교사가 되겠다고 확정을 하게 된 것이죠. 연습할 수도 없고, 반복할 수도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선교사로 드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민을 했던 시간들이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는 계기가 됐어요.”

### 장래 희망은 오직 선교사

- 중1 때 그런 결심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선교지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순회사역을 하시던 부모님과 상의하면서 언어문제와 현지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중2 때 인도로 가기로 하고 준비했으나, 현지 학교가 입학을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 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고1 때 중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고졸자격을 취득했어요. 그 이후, 고2 나이에 홍콩 대학에 들어갔고, 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영어를 배웠어요. 이것이 훈련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때가 1993년이네요.”

- 아직 어린 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걸로 보기에 잘 지낸 것 같은데 1년 정도 홍콩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잠만 잤어요. 이해가 안 되게 몸이 피곤했어요.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잔 거 같아요. 긴장이 많이 됐던 모양이에요. 한 달이 지나니 괜찮아지더군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영국 신학교에 들어가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이곳에서는 훨씬 수월했어요.

이제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됐고,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조금 유연해진 것 같았어요. 그나마 조금 일찍 해외에 나온 덕에 몸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이 시간 동안 한국 사람이 아닌 열방 가운데서 유연한 사람을 만드신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의 껍데기가 벗겨졌다고 할까요?”

- 한국 사람 껍데기가 벗겨졌다는 게 무슨 의미죠?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문화권의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에게 당연한 게 이들에게 당연하지 않은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도 강조점을 두는 부분이 많이 다르죠. 이런 것들이 부딪칠 때마다, 그동안 우리가 가르치는 게 성경이 아니라 전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과연 내 생각은 성경적인 것인가?’ 많이 생각하게 됐죠. 지금은 훨씬 유연해졌어요. 생각이 전형적인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해외에서 자란 아이들을 TCK(Third Culture Kids, 제3의 문화를 가진 자녀)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과 같은 특성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하면서 재미있게 사역했어요. 선교사로서 사역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고 어떻게 하면 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보게 됐어요. 팀워크도 좋았고 서로 보완이 됐죠. 그런데 한계에 부딪쳤어요. 잘 가르치고 잘 들었는데 사람이 결국은 말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선교지에서 말로는 믿음을 가르칠 수 없어요. 삶으로 보여줘야 해요.”

- 그렇군요. 사역 초기에 중요한 경험을 하셨네요.

“아프리카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2004년이었어요. 그때 부모님이 복음학교를 권하셨어요.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그동안의 시간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동안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 계속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확실한 응답이 없었는데, 복음



▲ C국 주민들 모습. © 복음기도신문

어디가든 적응을 잘해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핵심이 아닌 것에는 목숨 걸지 않게 됐어요.”

### 어린 시절부터 해외생활 통해 열방용 사고방식 갖게돼

-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영국 신학교에 입학해 3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와서 군입대를 했어요. 제대 이후 한 달만에 국제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보통은 선교현장으로 나가기 위해 언어, 신학을 준비하는 시간이 2~3년씩 걸려요. 그런데 저는 한국 남자로서 가장 빠른 길로 간 거 같아요. 저는 이미 언어와 선교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단체 들어와서 몇 개월 훈련받은 후에 바로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게 26살이었어요.”

- 아프리카는 어떠셨어요?

“서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에서 영어 학교를 열고, 청년들을 훈련

학교를 시작으로 1년 동안 이 말씀을 제게 내면화시켜 주셨어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었어요.”

- 지금 계신 곳은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나요?

“한국에 들어온 뒤 마음속으로 세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중에 C국은 전쟁 중이었고, 외국인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또 기독교 국가와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도 심해서 막막함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죠. 이 말씀으로 주님은 ‘이 일이 나로부터 나온 일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에 선교단체 본부장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느닷없이 C국에 가겠다고 물어보

셨어요. 제가 C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어제 전화가 왔으면 지금 이 대답을 못했을 텐데,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가겠다.’고 했어요. 물론 그곳에 갈 수 있는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군요.

“그러나 최종 결정까지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가장 중요한 과정은 개척 선교지는 전 세계 리더들이 모이는 국제회의에서 만장일치 찬성이 나와야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회의가 진행될 때 한국에서 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200명의 리더들 중 C국 필드를 여는데 반대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고, 15년 넘게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개척팀 리더십을 맡겠다고 하셔서 주위의 우려도 일시에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감사와 찬양을 했는데 주님이 이 일을 하고 계셨더군요.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의 나사로 이야기에서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저는 C국이 어렵다 어렵다 고민하고 있을 동안, 주님이 ‘언제 내가 너에게 나사로를 살려내

어 갔는데 그를 통해 그곳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을 또 소개받았어요. 건설업을 하시는 분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그분도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외국인이 그곳에서 사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우리 팀원들도 가보고 싶다고 해서 일주일 후에 김 사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1박 2일 교체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김 사장님이 김OO 선교사님을 아냐고 물으셨대요.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반가운 마음에 그분을 만나 2박 3일 교체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자기를 여기에 보내서 고생을 시키셨는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도움을 받게 됐어요. 주님이 준비해 주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것이 ‘자동문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앞에 가면 열리는 거예요. 이후에 그 나라 법도 바꿔주셔서 우리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지금은 다시 비자상황이 어려워졌는데 딱 그 시기에만 가능했죠.”

- 진짜 놀라운 자동문 은혜네요.

“2013년 3월, C국에 저희가 선발대로 들어갔어요. 막상 선교지에 들어갔지만 선배 선교사들이 없잖아요.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정말 어려웠어요. 그 나라에는 외국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면 지나가던 차가 서서 우리를 구경할 정도였어요. 당시에는 공산품이 부족해서 휴지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내가 첫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름에는 엄청 뜨거운데 아무것도 없으니 걸어 다니면서 적응해 나가야 했죠. 3년 동안 아이 3명이 태어났고, 팀 사역도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제가 도와주고 신경써야 할 일들 뿐이었어요. 그러니 일단 머리와 살이 많이 빠졌고, 혼자서 버둥대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여러 번 시도했던 일들이 번번이 다 안됐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걸도는 것 같았어요.”

- 그렇군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힘든 싸움이었어요. ‘주님이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현실은 버둥거리고 있었죠. 그 사이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고 발버둥쳤어요. 그러면서 신체적으로

• 5면에 계속



선교 통신

# 말라위, “기름값이 두 배 이상 오르고 혼돈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 목회자 제자훈련과 전도, 예수 영화까지... 부흥도 여전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투명과 혼돈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고물가와 고환율, 그리고 고유가로 인해 ‘스태그인플레이션’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현지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크라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라위는 코로나가 다시 서서히 매일 30여 명 대로 증가하고 있고, 콜레라도 여전히 매일 10여 명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1리터당 800과차(약 1023원)에서 1400과차로 오른지 채 몇 달도 안되어 2000과차(약 2560원)로 갑자기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2300과차로 또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지인의 주식인 옥수수 50kg 한 가마가 수확기의 경우 보통 5000~6000과차에서 지금은 1만

2000~1만 5000과차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년 헝거 시즌에는 예상보다 두 배는 더 오를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계가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지만, 세계 최빈국인 아프리카의 상황은 더욱 빈곤과 기아와 질병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말라위가 이런 상황에서 잘 극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살롬.

지난 2년 여에 걸친 코로나의 영향으로 목회자를 비롯한 많은 현지인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해가고 있는 듯해서 신앙의 재무장 차원에서 목회자 제자훈련을 일주일간 진행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고 전기나 물 공급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50명의 목회자 훈련을 새벽부터 밤까지 팍팍한 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침은 금식으로 식사 시간에는 성경읽기와 나눔으로 대신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중보기도와 성경읽기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 외부강사와 제자집중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매

일 두 번의 식사 시간에는 암송 6구절씩 통과해야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훈련 이틀째에는 두 명의 현지 목회자가 몰래 짐 싸들고 도망쳤습니다. 그래도 48명의 목회자들은 끝까지 제자훈련에 참여하여 수료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훈련 마지막 날에는 2인씩 짝지어서 마을과 인근 대대로 나가 전도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32명을 전도하였고 전체 그룹에서 200여 명을 전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밤에는 캠프파이어와 함께 회개의 시간과 더불어 예수 영화를 상영했는데, 발을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목회자 제자훈련을 끝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목회자 제자훈련을 주도한 리더들 십여 명 중 여러 명이 자체 규율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정직과 불순종을 저질렀고, 이에 가장 아끼고 의지하는 리더 두 명을 징계하게 되었습니다. 충분



출처: Abrahan Echeverria on Unsplash

한 회개를 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복귀하거나 떠나보내는 조건으로 자숙의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었지만,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새 길을 예비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라위에는 한국의 70년대에 삼각산 기도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분다(Bunda)산인데, 홀리 마운틴(Holy Mountain)이라고도 불립니다. 수도인 릴롱궤의 해발고도가 1100m 수준이라, 산이 제법 가파르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행시간은 한 시간이 안 걸립니다만 숨이 차고 힘이 듭니다. 올라가는 포인트마다 성경말씀이 바위 위에 쓰여져 있습니다. 제일 힘든 고비라고 생각되는 포인트에는 “Jesus is coming back(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이라고 쓰여져 있어 조금만 참고 올라가자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정상에 오르면 ‘모세 계단’이 있습니다. 리더들과 때로는 스태프들과 함께 오를 때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날이 너무 추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지만,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200~300여 명이 때를 이루어 기도하는 장면을 흔히 목격하곤 했습니다. 릴롱궤가 다 내려다 보이는 산정상에서 말라위와 선교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GNPNEWS]

말라위=민경화·홍희 선교사

## 복음의 능력

### 지금 그리스도를 선택하라!

흐트러진 삶을 사는 자여, 들으라! 당신은 지금까지 세속적인 잡담으로 웃고 떠들며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이제 지혜의 부르심을 듣고 돌이켜라. 지혜를 택하고 지혜의 길을 배워라. 그러면 살리라(잠 9:5~6). 조롱하는 자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까지 당신이 경건과 신앙인들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길을 비웃고 조롱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당신을 그분의 긍휼의 날개 아래로 모으기 위해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 형식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여, 당신이 미지근하여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있다면 텅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를 끝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제까지는 그리스도께 불쾌한 존재였던 당신이 앞으로는 그분의 기쁨이 될 것이다(계 3:16~20). 이제,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당신에게 찾아왔음을 알고 놓치지 말라. [GNPNEWS]

돌이켜 회개하라 (조셉 얼라인)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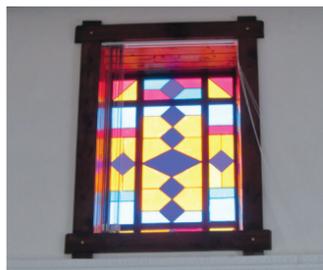
• 4면에 이어 Interview

## “상황은 어려운데 내가 달라졌어요”

도 번아웃(탈진)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이 과정을 몇 년 겪고 나서야 이제 조금 몸으로 체득된 거 같아요. 상황은 어려운데 내가 달라졌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 그렇게 현장에서 준비되는군요. 주님이 가장 완전한 준비를 해주신 것 같네요.  
“3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후두염이 걸려서 말을 한마디도 못한 때가 있었어요.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동안의 시간을 돌아보았죠. 그때 주님이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5개월 동안 중보자들 300용사를 세워주셔서 기쁘게 C국으로 돌아갔는데, 기도가 시작되니까 반격도 시작되더군요. 돌아가자마자 팀 안에 문제가 생겨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문제를 정리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3개월 동안은 록다운이 되어 집밖을 못나갔어요. 선교지에 있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막막했는데, 오히려 이 기간을 사용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은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어요.”  
- 선교의 주제가 주님이심을 절감하는 시간이 이어지는군요.  
“나는 못해도 주님이 하시지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때가 2020년 중반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들어오기 전까지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정기적으로 하던 사역을 못할 정도로 계속 일이 생겼어요. 팀과 파트너 4가정이 있는데, 모든 가정의 가장들에게 건강의 문제가 생겼어요. 한명은 시한부 선고를 받고 한명은 지붕에서 떨어져서 결국 한국으로 후송을 했어요. 한명은 코로나에 심하게 걸려서 고생하고, 또 전쟁이 터졌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되는 게 없고, 풀리는 것도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달라졌어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긴장이 와도 오래 가지 않았죠. 사역도 중단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마음이 평안했어요. ‘주님이 하시지.’ 하면서, 돌굴림이의 삶의 형태를 조금 경험해보게 된 것 같아요.”

- 네. 우리가 돌 문을 치워놓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듯,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군요.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계획을 하고 전략을 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리더를 맡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생각했었는데, 이때는 전혀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주님이 던져주신 일을 할 뿐이었어요. 그러니 무계획이었어요. 원래 스타일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졌는데,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살이 찘어 본 적이 없거든요. 주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뒤돌아보면 그 시기를 통해 몸으로 체득해서 배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몸에게 새겨주시는 것 같네요.  
“감사하게도 올해 처음으로 거기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전략으로 한



© 복음기도신문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었어요. 현지인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1년 동안 복음스터디를 했는데, 그것도 방해가 너무 심해서 1년 내내 10과도 못했어 정도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한 것이죠. 이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생명을 다해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주님 따르겠다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순종해서 돌만 굴렸을 뿐인데 메마른 땅에서 새싹이 돌아나게 하시는 것을 본 것이죠. 앞으로 더 기대가 돼요. 전략이 더욱 없어지고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가 기대가 돼요.” [GNPNEWS]

Y.K.

〈인터넷 복음기도신문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복음에 대한 두 반응 (6)

#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신비한 연합의 영광을 맛보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보다 더욱 현실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주님의 교회요, 우리 심령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심령에 실재라면 누구도 함구할 수 없는 변화와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내 삶에 과연 실재인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1-4)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저주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죄 없는 신 당신의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의 모양으로 보내어 내가 받아야 할 심판 자리에 예수님을 내 이름표 달게 해서 심판을 집행하셨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을 끝장내셨다. 울어도 몸부림쳐도 안되던 인류의 근원적인 숙제를 끝장내시고 내 인생의 슬픔과 저주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셨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은 내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가시는 신비한 연합을 믿음



일러스트=이예원

으로 순종할 때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말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

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

심령이 가난하고 목마른 자가 애통한 심령으로 절망 가운데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나 자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몰라서 망할 것 하더니, 율법을 알고도 나는 내 마음을 스스로 다룰 수가 없고 말씀대로 살아지지 않아 죽을 것 같습니다. 오 하나님, 어찌 합니까?”하고 탄식 가운데 털썩 주저앉을 때 귀로만 들었던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6)

가난하고 목 마른, 실패하

고 완전히 깨어진 심령에는 구명줄을 잡듯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생명으로 받아들여져 인생이 흠뻑 뒤집히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며 살아온 40여 년 동안 ‘복음의 실제’는 내게 하나의 주제였다. 아무 쓸모없던 나는 멸망 제1순위였다. 전혀 가능성이 없고 내 자신을 포기한 채로 자학증에 시달리던 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던 그 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평생 그 감격만으로 감격하다 죽을 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내 생명의 고백이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2018년 6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GRACE 1997 Mission**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주님 따르기에 너무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옷이라도 입고 싶어요! 작은 외마디라도 이 옷의 글귀처럼 살고 싶어요!

교회, 선교단체, 학교 등 단체티 주문, 제작 소량부터 대량까지 주문받습니다. 최소한의 마진은 적용합니다. ^^

**문의 및 상담 | 010-8766-9129**

하나님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문화 예술 선교단

**Blue Fish Company**  
Stage & Film

문화·예술의 부흥을 꿈꾸는 기도모임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수도권에서 모입니다.

**블루피쉬는** 병에 담겨 있을 때는 평범한 물고기입니다. 그러나 바닷물 속에서 햇빛을 받으면 본래의 파란 빛을 발합니다.

**블루피쉬컴퍼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열방에 비추는 공동체입니다.**

- 열방과 다음세대에게 드라마로 복음전파.
- 문화예술인들에게 복음전파.

문화·예술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할 분을 기다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엡 5:8)

**문의 | 010-3272-6251**

**영원간병회에서 간병사를 모집합니다**

영원간병회는 열방을 섬기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단체로 전국에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일할 간병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들도 간병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51-271-0171, 010-7227-2560  
협회장 김명숙 권사  
✉ sejy22@nate.com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 선교사를 포기하려던 나를 주님이 다시 불러주셨어요

20대 초반부터 하나님은 내가 선교적 존재임을 은혜로 알게 하시고 부르신 주께이신 하나님을 따라 20여 년을 달려오게 하셨다. 하나님은 주님이 전부되게 하시기 위해 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고, 예수가 전부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었다.



일러스트=고은선

멀리 갈 것도 없이 작년 1월 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0여 분의 잃어버린 기억! 깨어나 보니 차디찬 욕실 바닥에 왼쪽 눈두덩이는 찢어져서 피가 나고, 이마는 함몰되어 있었다. 그런 내 모습을 거울 앞에 마주하는 순간, 내 깊은 내면에서 감사가 터져 나왔다.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돌이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물론 6바늘 꿰매는 고통의 순간도 있었고 함몰된 이마의 죽은 신경이 돌아오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상관없었다.

사고난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시간 동안 어느새 20여 년 넘게 달려온 선교를 포기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했던 삶이 무엇인지 돌아봤다. 내가 원할 때 커피 한 잔,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고, 쉬는 삶이었다. 대단한 것도 아니었다. 내 마음은 초막집이어서 머리 돌 곳만 있으면 그저 하루 한 끼 먹어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다.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은 이상황을 허락하셨고, 이 모든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감사의 고백이 솟구쳤다. 그리고 다시 부르

신 자리에서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때 주님은 부르신 자리에서 밤 해주는 자가 되라는 마음을 주셨다. 어느 누구에게든, 내가 쓰임 받는 자리에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가 쓰임 받는 비밀, 그로 인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소망하며 준비케 하셨다. 열방 어디로 가야 할지도 주권을 넘겨드리게 하셨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을 엄마와도 시간을 진하게 보내게 하셨다. 병든 어머니에게 나는 해드릴 게 없는데 주님은 '내가 너보다

네 엄마를 더 잘 안다.'며 위로해 주셨고 온전히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게 하셨다. 이미 가야될 곳도 주께 위임해서인지 P국이 결정되었다. 그 땅을 생각할 때 참 기쁘고 설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앞이나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출 33:17~18)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보고 싶은 간절함을 부어주신다.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에 두려움보다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너무나 설렌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와서 도우라' 초청하는 자들과 복음으로 연합케 하실 주님을 기대한다. [GNPNEWS] 강다비다

복음의 소리 1670-3160

워크숍 지상중계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 전화(1670-3160)가 진행한 '신앙 상담 시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주제로 열린 상담자 세미나(강사 권서영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 정신질환은 믿음이 부족해서 생길까?

+ 신앙 상담 시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1)

신앙 상담 시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강의를 통해 주님께서 명령하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필요한 지식들을 익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질문을 먼저 던져보자. 정신질환은 믿음이 부족해서 생길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시간을 통해 먼저 정신질환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정신질환 중에서도 생물학적인 원인이 강한, 흔히 말하는 정신병이라고 하는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그런 다음 각각의 질환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몇 대표적인 정신질환과 이런 정신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탄의 공격이나 귀신들림과 정신질환의 구별법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이다.

정신의학은 전공한 의사의 입장에서 정신의학은 심리학(상담학)과 조금 구분지어 설명할 수 있다. 두 학문은 물론 마음을 이해하려 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 심리학은 대부분 인간의 정상적인 행동이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정신의학은 주로 치료를 위해서 정신적인 병리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정신의학은 의학의 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신체적인 질환을 우선 이해해야 하며, 뇌과학, 약리학, 유전학, 생물학, 생리학, 정신 병리학, 진단학 등을 심도 있게 배워 환자에게 적용하여 병을 치료하는 법을 익히는 학문이다. <계속> [GNPNEWS]

## 부흥을 위하여

# 北, 도강 시도하던 일가족 총격에 사망... 움찔한 딸에 다시 총격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북한 양강도 국경 지역에서 일가족이 지난 7월 중 탈북을 시도하다 군인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 뒤늦게 전해졌다. 데일리NK에 따르면, 7월 중순 보천군 국경 지역에서 도강(渡江)을 시도하려던 50대 부부와 20대 딸이

폭풍군단 군인의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8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 조치와 관련해 국경연선 1~2km 계선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국경 차단 물에 접근한 인원과 짐승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격한다는 내용의 사회안전성 명의 포고문을 내린 바 있다. 국경봉쇄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양강도와 함경북도 등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이처럼 밀수나 탈북을 시도하던 주민들이 군인들의 총격에 사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국경에서 실탄 발사 등으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 밀수, 탈북 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강력한 통제 때문에 애꿎은 주민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장기간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면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봉착했고, 이에 먹고살기 위해 탈북을 시도하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군인들이 가족의 시

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대 딸이 움찔하는 것을 보고 다

시금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지 주민

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GNPNEWS]



▲ 중국 지린성에서 바라본 북·중 국경 지역. 출처: 데일리NK 캡처

## 양강도 운흥군, 굶어 죽는 세대 가장 많아

북한 양강도 운흥군에서 절량세대, 굶어 죽는 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양강도 당위원회는 운흥군에 대한 긴급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데일리NK에 따르면, 고산지대인 운흥군은 예부터 농사가 잘 안 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당 조사 결과 올해는 주민들이 씨불임을 준비할 처지도 안 돼 땅이 남아돌고 있다. 도당이 앞서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운흥군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데 따르면 하루 세 끼를 먹는 세대는 몇 세대가 안 되고 쌀을 먹어

본 지도 오래인 주민 세대들도 많은 데다 거의 모든 세대가 지난해 가을부터 굶다시피 살고 있는 형편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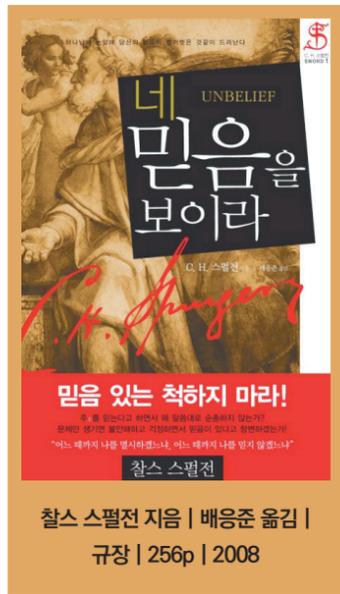
실제 운흥군의 주민들은 “올해 들어 밥을 먹어 본 게 3~4번 정도인데 그것도 집에서 먹은 것이 아니고 외부 공장이나 기업소 건설 공사장에서 일하고 얻어먹은 것”이라며 “자식들이 집에서 굶고 있다는 생각에 그것조차도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주민들은 또 도당 일꾼들과의 개별담화에서 “씨앗을 다 먹어 치워서 땅이 묵은 것”

이라며 “올해는 다 지나갔고 내년 봄 씨불임 전에 당에서 씨앗이라도 국정 가격으로 팔아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주민들은 “열이 나서 아프고 죽어가면서도 어떻게든 살기 위해 버둥거리는데 도당에서 제발 외면하지 말고 우리를 살려달라.”며 거듭 도움과 지원을 요청했다. 소식통은 “운흥군과 그 주변의 고산지대 농사는 올해도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까봐 일꾼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희망을 잃고 있다.”고 전했다. [GNPNEWS]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찰스 스펀전 <네 믿음을 보이라>

# 지금은 주님께 믿음을 보일 때



믿음을 믿지 않을 뿐이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우상 등을 믿고 살아간다.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험신짜처럼 내뱉는다. 이런 사람은 정말 신자일까? 저자는 이런 성도들의 믿음 없는 불신앙이 처음부터 어불성설이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이라며 회개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나는 상황에 부딪칠 때 낙담하기도 하고, 작은 일에 놀라거나 안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슬픔에 빠질 때가 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신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믿음을 주시라고 우리가 먼저 간구해도 부족할 것인데 주님이 친히 주님을 믿도록 도와주신다니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모독이며  
진리를 거부하는  
사악한 마음이다  
”

고의적으로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 요한일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라고 선언한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 저자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모독이며 진리를 거부하는 사악한 마음'이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없다거나 구원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니 주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믿지 않는다면, 이 불신앙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진실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유다 지파가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기록된 것처럼 '철 병거'라는 상황으로 인한 불신앙은 하나님의 전능을 모욕하는 일이 된다. 다시 말해 불신앙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끝으로 저자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인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결단하기를 촉구한다.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까닭은 교회가 그들을 정복할 만한 믿음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급선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조금이라도 역행할 것이라거나 자신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철회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결단코 당신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단하라!”

이 책을 덮으며 불신앙으로 뒤로 물러서려는 겹쟁이의 옷을 벗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과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꿈을 꾸게 된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가슴을 뛰게 한다. 지금이 주님께 믿음을 보일 때다! 마라나타! [GNPNEWS]

김은영 선교사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에 이르는 요소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제이다. 그러나 믿음은 중요한 가치임에도 오해와 혼돈이 많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일단 이 책의 제목에서부터 '믿음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하나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 사형수의 형벌 이유를 읽기도 했던 벨맨, 오늘은?

중세시대 영국에서 이동식 활자가 발명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문맹 상태였다.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마을, 곧 사람들과의 주요 뉴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마을마다 소식을 알리는 모습이 있었다.

유년 시절, 고국에도 마을마다 면장·구장들이 소식을 나르듯, 마이크 확성기를 달아서 안내를 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유년 시절 눈이 많이 왔을 때, 함께 제설 작업을 위한 안내 방송은 그랬다. “마을 주민 여러분요, 안녕히 잘 주무셨는가요. 밤새 눈이 가 허벌나게 많이 왔~부렸네요. 있다가 11시에 마을 회관 앞에 모두 모여서 겁난 제설 작업을 함께 해보십시오요...”

### 유년 시절, 마을마다 벨맨의 안내방송

때론 시기별로 왕실 선언문, 지역 조례, 시장 일, 광고, 심지어 설탕 덩어리 판매까지 수세기 동안 벨을 흔들며 치는 벨맨의 외침도 있었다. 서로 마을을 보호하고 또한 신고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작업실

로 호송하고, 경범죄자들을 창고에 넣고 채찍질을 하기도 했다. 또 공개 교수형을 하는 동안 그는 그 사람이 교수형에 처한 이유를 읽고 교수형을 돕기도 했다. 물론 이들은 군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외치는 사람으로 그 목소리를 높인다. “들어봐요(O-yez!)”라며 외침이 시작된다. 1620년에는 체스터 지방의 한 거점 크로스 마켓 부근에서 정육점과 제빵사 사이의 싸움이 있었다. 그곳에서 그 ‘외침’은 그들 사이에 끼어들기도 했다. 1607년 벨맨이었던 조지 터널(George Tunnall)은 강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공지를 읽기도 했다. 1715년에 한 지역 남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벨맨은 시장 이름으로 된 선언문을 공개적으로 낭독하여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롭고 시민다운 행동을 하고 밤 시간에 거리를 돌아다니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들은 때때로 세금 인상과 같은 나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기도 했다. 그 모든 일은 집권 군주의 이름으로 행해졌으며



▲ 마을의 대소사를 비롯 국가 사책 등 다양한 소식을 전한 영국의 벨맨. 제공: 민경수 선교사

이들을 해치는 것은 반역으로 간주된다.

### 오늘날의 벨맨은 각종 미디어 매체

영국의 브렉시트 완수를 공약으로 내세워 3년 전 선거에서 승리한 보리스 존슨 총리는 최근 몇 달간 여러 논란에 휩싸이다 결국 보수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 후임을 위해 보수당에서 11명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시작된 대표 선출 즉, 차기 총리 선거가 진행 중이다. 이 경

합은 최종 후보 2명이 남을 때까지 진행된다. 이 중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투표는 일반 보수당원에 의한 우편 결선 투표로 선출되고 그중 한 명이 오는 9월 5일 총리로 확정된다. 그 날 그 소식을 전하는 벨맨인 각종 미디어 매체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치우치지 않은 보도로 알려주기를 기대한다. [GNPNEWS]

민경수 선교사(본지 영국 통신원)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22. 7. 26 ~ 8. 16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권순호 권혜령 김광희 김다경 김사희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신애 김애심 김영순 김정희 김형숙 노은옥 박경희 박민숙 박성규 박신희 신경순 신혜경 안민자 안수경 오세주 우 석 유영권 윤미자 이상현 이영옥 이은주 이장원 이지수 이진희 장근혜 정금자 정영배 조형광 차익수 차인순 최근희 최점옥 최정숙 하은숙 홍고집 무명

**교회 및 단체** 감서침례교회 게르교회 고현교회 마중물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샘물교회 서현교회교정팀 웹 신한테크 양덕원감리교회 예가연 오예그교회 은혜신일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주소망교회 참종양터라교회 처음사랑교회 함안순복음교회 험시바교회

###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